

大加耶 멸망과 高靈地域의 변화

李泳鎬*

차례

1. 머리말
2. 대가야의 멸망 과정
3. 대가야 왕도에서 대가야군으로
4. 통일신라기 지방 지배와 고령군
5. 고려시대의 고령군
6. 맺음말

【국문초록】

대가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560년설과 562년설이 있고, 560년설에서도 정월설과 9월설이 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대가야는 560년에 신라에 멸망한 적이 있거나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에서, 신라에 반란을 꾀하다 562년 완전히 멸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가야 멸망 후 수도였던 고령은 '대가야군'으로 격하되었다. 이에 따라 대가야인들의 향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 고령에 거주하였던 상당수 지배층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났다. 신라 정부에서 이들을 토착세력과 분리시키고자 거주지를 먼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지역 피지배층은 그 자리에 남았을 것이다.

통일신라기 고령지역은 오늘날의 고령군과 함천군 아로면, 가야면 일대를 포함하였다. 경덕왕 대에 '대가야군'은 '고령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령이란 이름은 이때부터

* 상주대학교 교양교직과정과 조교수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가야의 원래 국명이었던 ‘가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802년에는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가 창건되었다. 해인사는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후삼국시대에는 견훤과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면서 고령 지역 불교계의 분열을 가져왔다.

고려시대 고령군의 영역은 신라시대보다 축소되었다. 1018년 지방제도 개혁 시에 고령군의 일부를 이루었던 야로현이 합천군의 관할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인사는 고령군에서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고령지역에서는 13세기초 해인사 계통의 반룡사에서 화엄결사가 결성되었다. 이는 무신정권시대 교종 침체기 화엄종 승려들의 결사로서 주목된다.

주제어

대가야(大加耶), 가라(加羅), 고령(高靈), 야로현(冶壚縣), 해인사(海印寺), 반룡사(盤龍社), 화엄결사(華嚴結社)

1. 머리말

가야사는 한국고대사 중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고대사가 자료가 빈약함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가야사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가야의 수많은 논고도 주로 고고학 분야에 치중하였고, 문헌자료에 의한 연구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한국고대사의 기본 자료인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는 가야사 관련 자료가 극히 소략하다. 그리하여 이들 자료만으로는 전체적인 가야사상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日本書紀』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서기』에는 설화적이거나 왜곡된 내용이 많고, 기년 또한 불확실한 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외의 자세한 사실도 전해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기서는 대가야의 멸망으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가야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가야는 562년에 멸망하였지만, 이미 신라에 멸망한 적이 있거나 복속 상태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대가야 멸망 후, 대가야 왕도인 고령이 신라의 대가야군으로 편제되면서 일어난 대가야인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일신라기 경덕왕대를 중심으로 한 고령군의 모습과 신라 말기 해인사의 동향을 살펴보겠다. 나아가 해인사 계통을 이은 반룡사의 화엄결사에 유의하면서 고려시대 고령군의 역사에 대해서도 검토하려 한다.

2. 대가야의 멸망 과정

대가야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선 『삼국사기』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 (1)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加耶叛) 왕이 異斯夫에게 명하여 도벌케 하였는데, 斯多舍이 副將이 되었다. 사다함은 5천의 기병을 이끌고 앞서 달려가 梅檀門으로 들어가서 白旗를 세우니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전공을 논함에 사다함이 으뜸이었다. (『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 진흥왕 23년 9월조)
- (2) 진흥왕이 이찬 異斯夫에게 명하여 加羅國(加羅는 加耶로도 썼다)을 습격하게 하였다. 당시 사다함은 나이가 15~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드디어 명하여 貴幢 裨將으로 삼았는데, 그 郎徒 중에서 따르는 자 또한 많았다. 그 나라 경계에 이르자 元帥에게 청하여 그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梅檀梁(진단랑은 城門 이름이다. 加羅 말로 門을 梁이라 했다고 한다)으로 들어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에 군사가 쳐들어움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서 드디어 그 나라를 멸하였다. (『삼국사기』 권 44, 열전 사다함)

『삼국사기』에서는 대가야의 멸망을 신라 진흥왕 23년(562) 9월이라고 하였다. 562년 9월,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신라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대가야를 치게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먼저 기병 5천을 이끌고 대가야의 수도로 진격하였고, 전단분으로 들어가 신속하게 백기를 세움으로써 기습적으로 대가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가야 멸망은 신라의 군사적 침략 때문이지만, 그 계기는 대가야의 반란에 있었으며, 이사부와 화랑 사다함의 꿈이 컸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삼국사기』와는 달리 『일본서기』에서는 대가야가 이보다 먼저 멸망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서기』 흠명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사가 그것이다.

- (1) 신라가 任那官家를 打滅하였다(一本에는 21년에 멸했다고 한다). (『일본서기』 권 19, 欽明紀 23년 정월)
- (2)- ① 조칙을 내려 말하길, “신라는 서쪽의 오랑캐로 작고 보잘 것 없는 나라이다. 하늘을 거스르고 예의가 없어 우리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官家를 破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우리의 郡縣을 멸망시켰다.” (동 23년 6월)
- ②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調賦를 바쳤다. 그 使人이 신라가 任那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고 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부끄럽게 여겨 감히 돌아가기를 청하지 못하고 마침내 머물러 본토에 돌아가지 않았다. (동 23년 추 7월 己巳朔)

『일본서기』 흠명기 23년(562) 정월조에서는 대가야의 멸망이 562년이나 그 시기는 정월이라고 하였다. 즉 562년 정월에 신라가 任那官家를 타멸하였

으며, 동 6월조 및 추 7월조에서도 앞선 시기 신라가 임나관가를 멸망시켰음을 되풀이하였다. 즉 『일본서기』 기록 자체로는 우선 562년 정월 대가야 멸망 설이 타당한 듯하지만,¹⁾ 細註에서는 一本의 설이라고 하면서 560년(흙명기 21년, 즉 신라 진흥왕 21년) 설도 전하고 있다.

대가야의 멸망 시기는 560년 설과 562년 설이 존재하였다. 562년 설은 다시 정월과 9월의 양설이 존재하였다. 560년 설이 제시된 이유는 무엇이며, 도 562년 정월 설과 9월 설이 제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면 그 내면적 이유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한 이유이다.

『삼국사기』에서는 “加耶叛”이라 하여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켰다고 하였다. “加耶叛”에 대해서는 大加耶를 本加耶로 오인한 『삼국사기』 찬자의 가필이라고 하는 견해와²⁾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대가야가 562년 이전에 멸망하였고 562년의 사건은 사실상의 반란이었다는 견해가 있다.³⁾ “가야반”을 대가야를 멸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치부할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명분에는 실제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⁴⁾ 따라서 대가야는 562년 완전히 종말을 고했지만,⁵⁾ 一本에서 전하는

1) 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5, 295쪽.

2)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59, 655쪽.

千寬宇, 『復元 加耶史』, 『加耶史研究』, 일조각, 1991, 50쪽.

金泰植, 「6세기 중엽 加耶의 멸망에 관한 연구」, 『韓國古代史論叢』 4, 1992; 「加耶聯盟의 崩壞」, 『加耶聯盟史』, 일조각, 1993, 307쪽.

3) 林炳泰, 「新羅小京考」, 『歷史學報』 35·36합집, 1967; 『韓國史論文選集(古代篇)』, 일조각, 1976, 175-176쪽.

文暲鉉, 「伽耶史의 新考察—大加耶 問題를 中心으로—」, 『大丘史學』 9, 1975; 『新羅史研究』, 경북대출판부, 1983, 278쪽.

朱甫暉,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學』 4, 1982, 186쪽.

4) 『삼국사기』 권 34, 열전 昔于老 “沾解王在位, 沙梁伐國舊屬我, 忽背而歸百濟, 于老將兵往討滅之”에서 사벌국의 멸망 사례가 참고된다.

바와 같이, 560년에 멸망한 적이 있거나 사실상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가야 멸망 직전의 상황으로 대가야의 악사 우륵의 망명을 주목할 수 있다. 551년 3월, 대가야의 樂師 于勒은 망명지 신라에서 진흥왕을 만났거니와, 이를 보면 대가야의 정세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심한 혼란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우륵 망명 전후 시기 대가야의 정세는 다음 기사에서 살필 수 있다.

- (1) 정월에 年號를 고치어 開國이라 하였다. 3월에 왕이 巡守하여 娘城에 이르러 于勒과 그 제자 尼文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불렀다. 왕이 河臨宮에 머무르며 樂을 연주하게 하니, 두 사람은 각각 新歌를 지어 연주하였다. 이에 앞서 加耶國 嘉悉王이 12弦의 琴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12달의 律을 본뜬 것이다. 이에 于勒에게 명하여 그 곡을 만들도록 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及其國亂] 于勒은 樂器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투항하였다. 그 악기의 이름이 加耶琴이다. 王이 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여 이김에 따라 10개 군을 탈취하였다. (『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 眞興王 12년조)
- (2) [新]羅古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加耶國 嘉實王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왕은 “諸國의 方言이 각기 다르니 聲音이 어찌 한결같을 수 있으랴!” 하고는, 省熱縣人 樂士 于勒에게 12曲을 짓게 하였다. 그 뒤 우륵은 그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其國將亂]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삼국사기』 권 32, 雜志 1, 樂 加耶琴 조)

진흥왕 12년(551) 정월, 진흥왕은 開國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7살에 즉위한 진흥왕이 이제 왕태후의 섭정을 벗어나 친정한 사실을 말한 것으로

- 5)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진흥왕 19년 춘2월조 기사 이후 23년 7월조 사이의 기사가 누락되었다. 그러다가 7월조에서 “秋七月, 百濟侵掠邊戶, 王出師拒之, 殺獲一千餘人”이라 한 뒤 9월조에 대가야 멸망 기사가 이어진다. ‘九月’은 ‘正月’의 잘못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가야 정벌부터 사다함의 포상까지 합쳐진 사료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동 7월조의 기사가 『삼국사기』 권 27, 백제본기에서는 561년 7월조에 들어 있다.

짐작된다.⁶⁾ 이 해 3월 진흥왕의 娘城(청주) 행차는 곧 이어질 거칠부의 고구려 침공에 앞서 행해진 사전 답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475년 고구려의 침공으로 수도 漢城이 함락되고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는 고토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마침내 백제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551년 9월에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 탈환을 시도하였다.

바로 이 무렵 國原(충주)에 있던 우륵과 그 제자 니문이 낭성에 행차한 진흥왕에게 특별히 소환되었다. 이들은 진흥왕에게 각각 新歌를 지어 연주하였다. 우륵이 신가를 지어 연주한 것은 진흥왕 12년 3월이었다. 그렇다면 우륵의 망명 시기는 그 이전의 어느 시점이었을까. 위의 사료에서는 ‘及其國亂’ 혹은 ‘其國將亂’이라 하여 나라의 어지러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륵이 망명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던 國亂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가야국 가실왕으로부터 가야금 12곡의 제작을 명받았던 궁중 악사였던 것을 보면, 대가야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상정할 수 있겠다. 대가야는 말기에 이르러 신라와 백제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위기에 처하였고, 대가야 지배세력들은 친신라파와 친백제파로 분열되어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⁷⁾ 이때 우륵의 망명처가 신라였다거나, 낭성에 행차한 신라 진흥왕을 위해 우륵이 신가를 지어 연주한 사실을 상기하면, 그는 친백제파가 아니라 친신라파였음이 분명하다. 이 같은 갈등의 와중에서 우륵이 신라로의 망명을 결행했다는 것은 친백제파가 정권을 장악하였고, 친신라파는 세력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⁸⁾

우륵의 망명에는 제자 니문이 동행하였다. 이는 우륵의 망명이 개인적 차

6) 李丙燾, 『眞興大王的 偉業』,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669쪽.

7) 대가야연맹의 내부의 백제, 신라 양파의 대립에 대해서는 田中俊明, 『于勒十二曲と大加耶連盟』, 『東洋史研究』 48-4, 1990, 147쪽 참조.

8) 李泳鎬, 『于勒 12曲을 통하여 본 大加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려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105쪽.

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한다.⁹⁾ 우륵의 망명 계기가 대가야 지배층 내부의 갈등에 있었고, 친신라파가 친백제파에게 밀려난 것이라면, 우륵의 망명 시기는 피비린내 나는 탄압기이거나 탄압이 예상되는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륵은 이 같은 위협을 피해 친신라적인 정치세력들과 함께 망명을 결행하였다고 해석된다.¹⁰⁾

우륵 망명 이후 시기의 대가야는 백제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551년 9월, 백제·신라 동맹군은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공략하였다. 이 전쟁은 백제가 주도하고 대가야세력이 附庸國으로 백제를 따랐으며, 신라는 백제의 동맹국으로서 공동작전에 참가하였다. 이 때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하여 6郡을 회복하였고, 신라는 竹嶺 이북 高峴(鐵嶺) 이남의 10郡을 차지하였다. 백제와 신라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한강유역을 차지하였으나, 한강 상류지역을 획득했던 신라는 백제가 탈환한 한강 하류지역마저 기습적으로 점령해버렸다. 백제 성왕은 신라에 대한 복수전을 감행하였다. 554년 7월의 管山城(沃川) 전투에서 대가야는 또다시 백제의 附庸勢力이 되어 엄청난 대군을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¹¹⁾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 무렵 대가야의 집권세력이 친백제파였음을 시사한다.¹²⁾

관산성 전투는 백제와 가야연합세력의 완전한 패배였다. 백제 성왕은 전사하고 좌평 4명과 군사 29,600명이 참살되었다.¹³⁾ 이 전투는 가야군이 주력으로 참가하였던 만큼 백제보다도 가야연합세력의 피해가 훨씬 커서¹⁴⁾ 대

9) 林炳泰, 『新羅小京考』, 『韓國史論文選集(古代篇)』, 1976, 175쪽 및 朱甫暉, 「于勒의 삶과 가야금」,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2006, 81쪽.

10) 李泳鎬, 「于勒 12曲을 통하여 본 大加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2006, 106쪽.

11) 金泰植, 「加耶聯盟의 崩壞」, 『加耶聯盟史』, 1993, 289-309쪽. 이 때 왜의 원군도 참전하였는데 그 수는 1,000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규모였다.

12) 李泳鎬, 「于勒 12曲을 통하여 본 大加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2006, 107쪽.

13) 『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 진흥왕 15년조 및 동 권 26, 백제본기 성왕 32년조.

가야는 멸망 직전까지 물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사실들을 감안하면, 관산성 전투 이후의 대가야는 이제 신라의 부용세력으로 전락했고, 친백제파가 아닌 친신라파가 세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¹⁵⁾ 신라가 555년 비사벌(창녕)에 下州를 설치하고, 561년 이곳에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이유를 말해주는 분명한 사료는 없지만, 이는 당시에 정세 속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561년 백제 위덕왕이 신라의 변경을 침략하였다고 하듯이,¹⁶⁾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한 것은 친신라정책 하에서 존재하던 대가야 지배층 내부에서 모종의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지배층이 친백제적인 경향을 띠었거나 친신라파에서 친백제파로의 정권 이동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백제의 영향일 가능성을 우선 생각할 수 있겠다.¹⁷⁾

3. 대가야 왕도에서 대가야군으로

대가야 멸망 후 대가야의 중심지 고령지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였을까. 한 나라의 王都였던 만큼,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이는 『삼국사

14) 김태식, 「가야연맹의 붕괴」, 『가야연맹사』, 1993, 303쪽.

15) 李泳鎬, 「于勒 12曲을 통하여 본 大加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2006, 107쪽.

16) 『삼국사기』 권 27, 백제본기 위덕왕 8년(561)조 “秋七月, 遣兵侵掠新羅邊境, 羅兵出擊敗之, 死者一千餘人”. 그러나 신라본기에서는 562년의 사실로 되어 있다. 주 5) 참조.

17) 종래 대가야의 멸망에 대해서는 다른 가야 세력과는 달리 끝까지 신라에 저항하였고 이러한 저항은 결국 신라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인식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야반”의 의미를 생각할 경우 대가야 멸망기의 동향을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 권 34, 잡지 3, 지리지의 다음 기록에서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高靈郡은 본래 大加耶國이었는데, 시조 이진아시왕(또는 內珍朱智라고도 하였다)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였다. 진흥대왕이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땅을 大加耶郡으로 삼았다.

즉, 대가야국은 시조 이진아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16세 520년 동안 유지되다가 멸망 후에는 신라의 大加耶郡으로 편제되었다. 고령은 한 나라의 王都에서 古都가 되었고, 이제 하나의 郡의 지위로 떨어진 것이다. 대가야 왕도가 대가야군이 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대가야 멸망 직후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러나 신라에 병합되었으면서도 아직 ‘대가야’란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주목된다.¹⁸⁾ 이는 비록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그 이름조차 없애지는 못하였음을 말한다.

대가야 도읍은 오늘날의 고령읍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이었을 것이지만, 그 영역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고령지역(군치)과 야로면, 가야면, 우곡면 등을 포함한 지역이 왕의 직할지라고 하므로¹⁹⁾ 이 지역을 대가야의 왕도로 파악할 수 있겠다.

대가야에서도 신라나 백제, 고구려와 같이 部가 확인되고 있다. 대가야에서 부제의 실시를 보여주는 것이 합천댐 수몰지구인 陝川郡 鳳山面 苧浦里 E

18)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高靈縣 조에는 “高靈縣 本伽倻國, 自始祖伊珍阿鼓至道說智王凡十六世, 五百二十年, 新羅眞興王二十二年壬午, 滅之, 以其地爲伽倻郡”이라 하여 ‘대가야국’이 아닌 ‘伽倻國’, ‘대가야군’이 아닌 ‘伽倻郡’이라 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대가야 당대에 과연 “大加耶”란 국명이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다. 아마 가야 당대에는 加羅로 불렸고, 대가야는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별칭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大加耶’ 국명의 사용이 5세기 중엽이고 ‘大王’호의 사용이 6세기 중엽이라고 할 경우(盧重國,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1995, p.157, p.162) 이들 호칭의 사용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가야 당대에 사용된 것은 加羅뿐이며, 加耶는 멸망 이후에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5, 17-18쪽).

19) 盧重國,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1995, 170쪽.

지구 4호분의 봉토층에서 출토된 토기 명문이다. 이 토기의 口緣 내측에는 “下部思利利”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下部思利利에서 下部는 部名, 思利利는 인명으로 파악되는데,²⁰⁾ 토기와 토기가 출토된 고분의 연대는 6세기 중엽(525~550년대?)경이며, 토기의 양식은 대가야 계통이었다.²¹⁾ 下部에 대해서는 대가야의 部인가 백제의 부인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대개 대가야의 부로 파악되고 있다.²²⁾ 합천지역을 下部로 한 데서 대부분 연구자들은 고령을 上部로 추정하였다. 백제나 고구려의 부제를 참고하여 5부체제로 파악하기도 하고,²³⁾ 우륵 12곡명 중에서 상가라도나 하가라도의 존재를 주목하여 2부체제로 파악하기도 한다.²⁴⁾

부체제 하에서 각 부의 유력자들은 중앙귀족으로 轉化하면서 畞岐層으로 편제되었다. 이들 한기층들은 비록 王都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독자적인 관할 영역과 지배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부여에서 諸加들이 세력의 대소에 따라 수천가나 수백가를 별도로 주관하였다고 한 사실과, 고구려의 大加들이 使者·皂衣·仙人이라는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두었다고 한 사실 등에서 추론할 수 있다고 한다.²⁵⁾ 즉 대가야 왕도는 대가야 국왕과 핵심 관리 외에 각 부의 한기층들의 집합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가야 멸망 시 신라의 주된 공략 대상은 바로 이들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대가야의 멸망으로 대가야인들의 향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가야가

20) 부산대학교박물관, 『陝川 苧浦里 E地區遺蹟』, 1987, 220-224쪽.
 21) 부산대학교박물관, 『陝川 苧浦里 E地區遺蹟』, 1987, 71, 220-224, 436쪽.
 22) 下部를 백제의 부로 보는 견해는 金泰植, 「加耶의 社會發展段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9, 101쪽; 鈴木靖民, 「六世紀の朝鮮三國と伽耶と倭」, 『東アジアの古代文化』 62, 1990, 7쪽; 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259-260쪽 등 참조.
 23) 蔡尙植, 「陝川 苧浦 4號墳 出土 土器의 銘文」, 『伽倻』 2, 伽倻文化社, 1989, 28쪽. 盧重國,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1995, 169쪽.
 24) 白承忠, 「于勒十二曲의 해석문제」, 『韓國古代史論叢』 3, 1992, 467-468쪽.
 25) 盧重國,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1995, 170-171쪽.

멸망한 뒤 상당수 대가야들은 신라의 포로가 되거나 사민되었다고 추정된다.

- (1) 9월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왕이 이사부에 명하여 토벌케 하였는데, (중략) 전공을 논함에 사다함이 으뜸이었다. 왕이 좋은 토지와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으나 사다함이 세 번이나 사양하였다. 왕이 굳이 주므로 이에 받아 포로는 풀어 良人이 되게 하고 토지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니,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 진흥왕 23년)
- (2) 斯多습은 진골 출신으로 奈密王의 7대손이고, 아버지는 급찬 仇梨知이다. 본래 고귀한 가문의 후예로서, 풍채가 미끈하게 빼어났으며, 뜻과 기개가 곧았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화랑으로 받들기를 청하였으므로 부득이 맡았다. 그 무리가 1천 명에 다다랐으나, 그들의 환심을 다 얻었다. 진흥왕이 이찬 異斯夫에게 명하여 加羅國(加羅는 加耶로도 썼다)을 습격하게 하였다. 당시 사다함은 나이가 15-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중략) 왕은 공을 책정하여 加羅 사람 300명을 (사다함에게) 주었다. 이를 받아서 다 풀어 놓아 주고 한 사람도 남겨 놓은 것이 없었다. 또 田地를 하사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왕이 강권하므로 關川(현재의 경주시 북천)의 쓸모없는 땅만을 주도록 청할 따름이었다. (『삼국사기』 권44, 열전 사다함)

대가야 정벌에 크게 공헌한 사다함에게 좋은 토지와 포로가 된 가라사람 200명(혹은 300명)을 상으로 주었다. 이 같은 사실은 백제나 고구려 멸망시의 사례에서도 짐작할 수 있거니와, 대가야의 주민과 토지가 신라인들의 포상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한다.

대가야 멸망과 함께 대가야인들의 상당수는 대가야를 떠나 먼 곳으로 사민되었다. 대가야 멸망 직전 신라로 망명한 대가야의 궁정 악사 우륵이 국원으로 사민되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는 신라 왕경을 경유하여 국원으로 사민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⁶⁾

또한 强首의 선조도 국원으로 사민되었는데, 이는 다음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다.

强首는 中原京 沙梁人이다. 아버지는 나마 昔諱이다. (중략) 태종대왕이 즉위 하였을 때 당나라 사신이 와서 詔書를 전하였는데, 그 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왕이 그를 불러 물으니, 왕의 앞에서 한 번 보고는 해석하는 데 막힘이 없었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서로 늦게 만남을 한스러이 여겼다. 그 성명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은 본래 任那加良人으로 이름은 牛頭입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頭骨을 보니 强首 선생이라 불러야겠다” 하고, 그로 하여금 당나라 황제의 조서에 감사하는 답서를 쓰게 하였다. 글이 잘되고 뜻을 다 뗐으므로 왕이 더욱 기이하게 여겨 이름을 부르지 않고 任生이라고만 불렀다. (중략) 문무왕이 말하였다. “강수는 문장을 잘 지어 능히 중국과 고구려, 백제 두 나라에 편지로 뜻을 다 전하였으므로 우호를 맺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의 선왕이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것은 비록 군사적 공로라 하나 또한 문장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즉 강수의 공을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삼국사기』 권46, 열전 强首)

강수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대문장가였다. 강수는 당나라 사신이 가져온 조서를 즉석에서 해석하여 태종무열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에 강수는 자신을 任羅加良人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이는 그가 곧 대가야인이었음을 말한다. 강수가 태종무열왕을 만나고 있는 사실, 또는 우륵이 진흥왕에게 투항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강수의 가계도 그리 오래 전이 아닌 진흥왕대에 국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⁶⁾ 그리고 아버 석제가 신라에서 나마(11등)였던 것으로 보아 강수의 가문은 대가야에서 상류층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그가 오늘날의 충주인 증원경(국원경) 사람으로 불렸다는 것은 대가야 멸망을 전후하여 신라로 투항한 결과일 것이다.

26) 주보돈, 「于勒의 삶과 가야금」,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2006, 82쪽.

27) 林炳泰, 「新羅小京考」, 『韓國史論文選集(古代篇)』, 1976, 172쪽.

한편, 강원도 동해시 湫岩洞古墳群에서 다양한 대가야 토기들이 발굴되었다. 대가야와 이들 지역과의 교류가 있는 증거라고 한다면, 고령에서 이곳까지 이르는 길목에 대가야 계통의 유물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들이 없어 이는 곧 대가야인들이 이곳까지 사민된 결과라는 것이다.²⁸⁾ 大加耶 멸망 이후 대가야 遺民의 向方을 추론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인데, 강제적으로 사민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된 대상은 일반 피지배층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민의 목적이 지배층을 거주지에서 멀리 옮겨 이들을 토착세력과 분리시키고자 한 데 있었던 만큼,²⁹⁾ 이들은 대가야 왕도에 거주했던 상류 계층의 인물들과 그 관할 주민이었을 것이다. 특히 신라에 반기를 들었던 대가야인에 대한 사민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³⁰⁾

4. 통일신라기 지방 지배와 고령군

1) 지방 제도의 개편

삼국통일 직후인 신문왕 5년 신라는 넓어진 국토를 9주 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주와 소경은 삼국통일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제도적인 완성을 보았다. 9주는 신라, 백제, 고구려의 옛 영토에 각각 세 개의 주를 설치하였다.³¹⁾ 원 신라지역은 이 무렵 上州·下州에서 敵良州가 분리됨으로써 沙伐州·敵良州·菁州로 개편되었다.

28) 李炯基, 「滅亡 이후 大加耶 遺民의 向方」, 『韓國上古史學報』 38, 2002.

29) 韓祐勳,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上)」, 『歷史學報』 12, 1960, 101-105쪽. 林炳泰, 「新羅小京考」 『韓國史論文選集(古代篇)』, 1976, 175쪽.

30) 『삼국사기』 권 1,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5년조 “秋七月,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 및 동 일성이사금 13년조 “冬十月, 押督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地”.

31) 원 신라의 영역에 沙伐州·敵良州·菁州의 3주, 옛 고구려의 영역에 漢山州·牛首州·河西州의 3주, 옛 백제의 영역에 熊川州·完山州·武珍州의 3주를 설치하였다.

통일신라기 대가야 고도의 모습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다음 기사에서 추측할 수 있다.

高靈郡은 본래 大加耶國이었는데, (중략) 진흥대왕이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大加耶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영현이 들어있다. 冶爐縣은 본래 赤火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新復縣은 본래 加尸兮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삼국사기』 권34, 지리 1, 康州)

대가야 고도 고령지역은 통일 후 9주 중 康州(靑州)에 소속된 大加耶郡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영현으로 赤火縣과 加尸兮縣의 2개 현이 있었다. 그렇다면 대가야군은 오늘날의 고령읍 일대로 추정되는 郡治와 적화현, 가시혜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대가야 왕도는 오늘날 고령읍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였을 것이다. 적화현은 현재 합천군 야로면과 가야면 일대로 추정되지만,³²⁾ 가시혜현은 고려시대 당시에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 때 가시혜현을 합천군 가야면으로 비정하기도 하였으나,³³⁾ 최근의 연구로 고령군 牛谷面 지역임이 밝혀졌다.³⁴⁾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고령현 고적소에서 “현의 서쪽 10리 되는 곳의 지명에 加西谷이 있는데 尸兮가 변하여 西로 되었는가 의심스럽다”고 한 기록이 있지만, 『大東輿地圖』에 신복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 이를 고령군 우곡면 지역에 비정한 것이다. 결국 통일신라시대 고

32) 노중국,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1995, 159쪽.

33)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1977, 534쪽.

34) 노중국,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1995, 159-160쪽.

『大東地志』에서는 남쪽 30리의 加尸兮(加尸城)를 주장하면서 서쪽 10리의 加西谷 설은 일설로 취급하고 있다(『大東地志』 권 9, 慶尙道 高靈 古邑 조에 “新復(南三十里 本新羅加尸兮 一云加尸城 景德王十六年 改新復爲高靈郡領縣 高麗初來屬. 一云 縣西十里 有加西谷者疑是”). 新復의 위치가 우곡면 일대란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 고령읍과의 거리나 『대동여지도』의 표시로 보아 남쪽 30리 가시혜(가시성)가 사실에 가깝다.

령군의 영역은 오늘날의 고령군과 합천군의 일부까지를 관할하였다. 다만 그 시기는 경덕왕 대부터가 아니라 아마 9주 5소경제도가 완성된 신문왕 때까지 소급될 것인데, 아마 대가야 멸망 직후까지도 그 기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8세기 중엽, 경덕왕은 모든 제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漢化政策을 실시하였다. 경덕왕 16년(757) 12월에 전국의 州郡縣의 명칭을 漢式으로 개명한 데 이어³⁵⁾ 왕 18년(759) 정월에는 官號까지 중국식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³⁶⁾ 경덕왕 16년의 전국적인 지명 개정의 기준은 대략 5가지였다. 옛 이름의 음을 전하면서 보다 좋은 글자로 고친 音改, 옛 이름의 뜻에 의해 한자로 번역한 義改, 3자 내지 4자로 된 것을 2자로 줄이는 省改, 옛 이름의 음이나 뜻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글자로 고친 美改, 옛 이름의 음이나 뜻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지형이나 지리적 조건에 의해 고친 地改 등이 그것이다.³⁷⁾ 이에 따라 ‘大加耶那’는 ‘高靈郡’으로 개명되었고, ‘高靈’이란 지명은 바로 이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³⁸⁾ 고령군이란 지명은 대가야군에서 변화된 것이므로 글자 수가 줄었다는 점에서는 省改에 해당한다. 그러나 ‘高靈’이란 지명 자체 대가야 본래의 명칭인 ‘加羅’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정되므로,³⁹⁾ 이는 다시 音改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덕왕의 한화정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경덕왕의 급격한 개혁정치가 전통을 고수하는 내부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⁴⁰⁾ 경

35)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경덕왕 16년 동 12월조.

36)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경덕왕 18년 춘 정월조.

37) 末松保和, 『新羅檀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63-364쪽.

38) 종래 ‘高靈’의 기원에 대해서는 ‘高陽’과 ‘靈川’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지명은 신라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이미 ‘高靈郡’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39) Karlgren의 中國 上古音 분석에 의하면 ‘高’는 *kau/kou/kau*, ‘靈’은 *ling/ling/lieng*으로, ‘加’는 *kia/kia/ka*, ‘羅’는 *lo/lo/la*로 발음이 변했다고 한다. Bernhard karlgr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Taipei, 1966 : 『漢字古音辭典』, 亞細亞文化社, 1975, 112, 183, 122, 184쪽.

덕왕 다음의 왕인 해공왕은 왕 12년(776) 정월, 백관의 칭호를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명령하였다.⁴¹⁾ 이로써 백관의 칭호는 경덕왕대의 개정 이전의 명칭으로 되돌아갔다. 관호의 개혁과 복고의 사례는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일일이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백관의 칭호뿐만이 아니었다. 지명도 함께 복고되었기 때문이다.

- (1) 尙州牧은 원래 沙伐國으로서 신라 첨해왕이 빼앗아서 州로 만들었고 범흥왕은 上州로 고치고 軍主를 두었으며 진흥왕은 州를 없애고 上洛郡으로 만들었다. 신문왕은 다시 州를 설치하였고 경덕왕은 尙州로 고쳤으며 해공왕은 다시 사벌주로 고쳤다. (『高麗史』 권57, 지리 2)
- (2) 靑州牧은 원래 백제의 居列城(居陀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문무왕 2년에 빼앗아서 州를 설치하였고 신문왕 4년에 거타주를 나누어서 靑州總管을 설치하였으며 경덕왕은 康州라고 고쳤는데 해공왕이 다시 靑州로 고쳤다. (『고려사』 권57, 지리 2)
- (3) 溟州는 원래 濊國(鐵國 또는 藥國이라고도 한다)인데 한 나라 무제가 군대를 보내 右渠를 정복하고 그 곳에 4개의 군을 설치하였을 때 임둔으로 하였고 고구려는 河西良(河瑟羅州라고도 한다)이라고 불렀다. 신라 선덕왕은 小京으로 만들어 仕臣을 두었고 태종왕 5년에 말갈 지역과 접경되어 있다고 하여 京을 없애고 州로 만들어서 都督을 두어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 경덕왕 16년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가 해공왕 12년에 다시 옛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사』 권58, 지리 3)

사벌주의 명칭을 경덕왕이 尙州로 고쳤으나 해공왕이 沙伐州로 복고하였고, 靑州, 河西良州(河瑟羅州) 역시 康州, 溟州로 고쳤다가 복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국사기』에는 언급이 없지만, 『고려사』 지리지를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읍지』 등에서 확인할 수

40)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41)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해공왕 12년조 “春正月, 下教 百官之號 盡合復舊”.

있다.⁴²⁾ 혜공왕 12년 직후의 자료에서 지명개혁 이전의 고유어식 지명이 사용된 예는 『삼국사기』 신라본기나 금석문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대를 통해서 보면 모든 지명을 복고한 지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원래의 고유어식 지명과 한자어식으로 개명된 지명이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⁴³⁾ 금석문 등 당대의 자료에서 ‘대가야군’ 혹은 ‘고령군’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고령군’과 ‘대가야군’의 명칭은 아마 혼용되었음직하다.

후삼국시대 고령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야로현이 당시 고령군의 관할이었고, 후백제왕 甄萱이 오늘날의 합천지역인 大耶城을 차지하기 위해⁴⁴⁾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한 사실에서 고령지역의 정세를 짐작할 수 있다. 곧 견훤은 901년 8월과 916년 8월에 대야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⁴⁵⁾ 920년 10월에는 견훤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쳐서 마침내 함락시켰다. 그러나 신라의 구원요청을 받은 고려군이 출동하자 철군하였다.⁴⁶⁾ 924년 7월에는 견훤이 아들 須彌強을 보내 대야성과 聞韶城(현재의 경북 의성군 금성면) 두 성의 군사를 일으켜 曹物城을 공격하였으나, 성의 사람들이 고려 태조를 위하여 굳게 지키며 싸웠으므로 수미강이 손해를 보고 돌아갔다고 한다.⁴⁷⁾ 이 무렵 대야성은 다시 견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927년 7월에 고려 태조 왕건이 元甫 在忠, 金樂 등을 보내 대야성을 격파하고 장군 鄒許祖 등 30여 명을 포로로 하였다.⁴⁸⁾ 그러나 11월, 견훤의

42) 李泳鎬, 「新羅 惠恭王 12年 官號復故의 意味」, 『大丘史學』 39, 1990, 50쪽에서는 상주목, 진주목의 사례만 열거하였지만, 이제 명주의 사례도 추가한다.

43) 李泳鎬, 「新羅 惠恭王 12年 官號復故의 意味」, 『大丘史學』 39, 1990, 50쪽.

44)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매봉산 정상에 둘러 쌓은 성이 대야성이라고 한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133호이며, 최근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陝川 大耶城(陝川郡 大耶城 考證을 爲한 1·2차 試掘調査報告書)』, 2005.

45) 『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 효공왕 원년조 및 신덕왕 5년조.

46) 『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 경명왕 4년조.

47) 『삼국사기』 권 50, 열전 견훤 및 『고려사』 권 1, 세가 1, 태조 7년조.

경주 침공과 포석정에서의 경애왕 피살사건이 일어나고, 신라의 원군 요청과 고려군의 출정, 공산전투의 패배 등 일련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야성은 또 다시 후백제의 손으로 넘어갔다. 928년 8월에는 후백제 장군 官昕이 대야성 아래에 나아가 진을 치고 머무르며 군사를 나누어 보내 大木郡(경북 칠곡군 약목면 일대)의 벼를 베어 갔다.⁴⁹⁾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령과 인접한 대야성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후삼국시기 대야성에서는 견훤과 왕건의 일진일퇴의 각축전이 벌어졌다. 여기서 신라와 후백제의 국경에 위치한 고령지역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⁵⁰⁾

2) 해인사의 창건

대가야에 언제 어떤 경로로 불교가 들어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월광태자가 월광사를 창건하였다는 설화나 고아동 벽화고분의 벽화의 주제가 蓮花라는 것은 대가야에도 불교가 들어와 신앙되었음을 보여준다.⁵¹⁾ 통일신라시대 고령군 관내 불교 관련 자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48) 『고려사』 권1, 세가 1, 태조 10년조. 원문에는 大良城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야성과 같다.

49)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순왕 2년조 및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1년조.

50) 『慶尙道地理志』 尙州道 善山都護府 高靈縣 조에는 “高麗時 稱高陽大都護府 又稱靈州牧官 此則諺傳也”라 한 기록이 있다. 이를 참고하여 후삼국시대 고령지방의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이 대단히 컸다는 견해가 있다. 즉 후삼국시기 고령지역은 신라와 후백제의 국경지역에 위치하여 고려 태조가 이 지역을 요충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후백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히 군사적 기구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高靈郡, 『高靈郡誌』, 1996, 184쪽). 그러나 ‘고양대도호부’ 혹은 ‘영주목관’이란 이름은 고령지역의 실제와 거리가 있고, 또한 고령군의 영현이었던 야로현이 고려초 합천군 관할로 편입되는 것을 보면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대야성을 둘러싼 왕건과 견훤의 싸움이 치열했다 하더라도 대야성이 있는 합천지역의 중요성이 고령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경상도지리지』에서도 諺傳이라 하여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다.

51) 金福順, 『大加耶의 佛敎』, 『加耶史研究』, 1995, 284-288쪽.

- (1) 勿山寺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는 살아 있다』, 2006, 112쪽).
- (2) 月光寺는 야로현 북쪽 5리에 있다. 大伽倻 太子 月光이 창건한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합천군 불우조).
- (3) 擧德寺의 절터는 해인사 서쪽 5리에 있다. 최치원이 지은 『釋順應傳』에, “그 서쪽 산 두 시냇물이 합치는 곳에 거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옛 大伽倻國 太子 月光이 結緣한 곳이다”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합천군 고적조).
- (4) 802년 8월에 가야산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삼국사기』 권 10, 신라본기 애장왕 3년조)
- (5) 예컨대 慶州의 南山, 剛州의 氷山, 陝州의 淸涼寺, 智異山의 雙溪寺, 合浦縣의 別墅 등은 모두 그가 노닐던 곳이다. (『삼국사기』 권 46, 열전 최치원)
淸涼寺는 월유봉 밑에 있으며 최치원이 여기에 놀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0, 합천군 불우조).
- (6) 蘇利菴은 가야산에 있다. 서거정의 중창기에, “합천의 명산은 가야산이다. 이 산을 牛頭, 雪山, 象王, 衆香, 只恨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산 하나에 여섯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다. 산의 빼어남이 동방에 알려져서 신라 『殊異傳』에 기록된 바로는, ‘동방에 옛적에 소리암이라는 큰 절이 있었다’ 하였다. 이미 천수백 년 전 기록이니, 그 절이 어느 때에 폐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빈터가 역력히 남아 있다”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0, 합천군 불우조).



‘勿山寺’ 명 외편

위의 사료는 통일신라기 고령지역의 불교 관련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원명, 소재지, 창건, 신라시대 유물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통일신라기 고령 지역의 불교 사원

사원명	소재지	창건	신라시대 유물
勿山寺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幢竿支柱(보물 제54호)
月光寺	冶廬縣北五里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 寺址)	대가야 태자 월광이 창건	月光寺址三層石塔(보물 제129호)
舉德寺	遺址海印寺西五里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	대가야 태자 월광이 결연	
蘇利庵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 寺址)	대가야시대?	
海印寺	가야산 서쪽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802년(에장왕 3년) 순응이 창건	三層石塔(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54호) 吉祥塔(보물 1242호) 石燈(경상남도유형문화재 255호) 願堂庵 多層石塔및石燈(보물 제518호) 法寶殿毘盧舍那佛坐像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호)
淸涼寺	月留峰下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매화산)	신라시대	石造釋迦佛坐像(보물 제265호) 三層石塔(보물 제266호) 石燈(보물 제253호)

먼저, 통일신라시대 불교사원의 존재를 말해주는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보물 제54호)는 고령읍내 구 고령군청에서 합천, 거창으로 가는 도로의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상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당간지주 주변에는 사찰과 관련된 어떤 흔적도 확인할 수 없으나, 다만 북쪽으로 200여미터 위치에 있는 연조리 추정 대가야 宮城址 내에서 기와와 博 등이 채집되고, 현재의 대가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불과 석등, 석탑, 연화대좌 등의 석조물이 인근 지역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아, 당간지주에서 대가야 왕궁지에 이르는 일대에 대규모 사찰이 조영되었을 것이라고만 추정하여 왔다.⁵²⁾ 그러나 최근에 고려시대 제작으로 추정되는 “勿山寺”銘 瓦片

이 모산골에서 수습되어 비로소 절의 이름이 勿山寺였음이 밝혀졌다. 아직 창건 경위나 그 시기 등은 알 수 없지만, 신라 당시의 이름도 같았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현재 池山里라는 마을 이름도 勿山 → 물(못)산 → 池山으로 변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⁵³⁾

오늘날 고령군 지역의 불교 유적은 빈약한데 비해 통일신라시대 고령군의 일부였던 야로현 지역(현재의 야로면, 가야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기록과 유적·유물들이 남아 있다. 月光寺와 擧德寺는 모두 대가야국 월광태자와의 전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거덕사는 월광이 結緣한 곳인데 비해 월광사는 월광이 창건한 사원이라 하였고, 또 사원의 위치도 서로 달라 같은 사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⁵⁴⁾ 다만 거덕사는 가야산 蘇利庵과 같은 사원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⁵⁵⁾ 그렇다면 대가야 시대의 사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淸涼寺는 월유봉 밑에 있으며 최치원이 여기에 놀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창건 시기는 그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9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석조석가불좌상(보물 제265호), 삼층석탑(보물 제266호), 석등(보물 제253호) 등이 남아 있다.

통일신라기 고령군의 사원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海印寺이다. 해인사는 애장왕 3년(802) 8월 창건되었는데,⁵⁶⁾ 창건자는 승려인 順應과 利貞이었다. 효공왕 4년(900)에 최치원이 쓴 「海印寺善安住院壁記」에는 “祖師 順應大德은 神琳碩德에게 공부하였고 大歷初年(766)에 중국에 건너갔다”라고 하여, 순응

52) 具滋奉, 「高靈 池山洞 幢竿支柱의 發掘調査」, 『佛敎考古學』 창간호, 2001, 146쪽. 이에 대한 발굴조사는 高靈郡·慶北科學大學博物館, 『高靈池山洞 幢竿支柱 發掘調査報告書』, 2002 참조.

53)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는 살아 있다』, 2006, 112쪽.

54) 金福順, 「大加耶의 佛敎」, 『加耶史研究』, 1995, 289쪽.

55) 金福順, 「大加耶의 佛敎」, 『加耶史研究』, 1995, 289쪽.

56) 최치원이 지은 「善安住院壁記」(『崔文昌侯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2, 81-82쪽)에는 같은 해 10월 16일로 되어 있다. 이는 “越貞元十八年良月既望 牽率同志 卜築於斯”라 하여 건물을 지은 날을 말하는 듯하다.

이 浮石嫡孫 神琳의 제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가 화엄종 승려임에 의심할 바 없지만, 入唐의 유학을 통해 牛頭禪을 익혔던 데서 당시 화엄사상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⁵⁷⁾ 순응은 해인사의 造營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고 利貞이 그를 계승하여 해인사를 완성시켰다. 그는 순응과 더불어 당나라에 다녀온 바 있으며, 禪을 익힌 화엄승려라고 추측된다.⁵⁸⁾

해인사의 창건에는 소성왕의 어머니 聖穆太后가 후원하였다고 한다.⁵⁹⁾ 애장왕 대에는 왕의 숙부인 金彦昇이 攝政으로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성목태후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권11, 소성왕 원년(799) 8월조에서는 “어머니 김씨를 추봉하여 성목태후로 삼았다”라고 하여 기록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인사의 창건에 왕실의 일정한 도움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⁶⁰⁾

조선 성종 21년(1490) 學祖和尚이 해인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였다. 이 때 毘盧殿 樑楣의 結構 중에서 都料匠 朴仲石이 9세기말의 田券 43매 발견하였다. 1491년 「해인사중창기」를 썼던 梅溪 曹偉는 이 전권을 보고 「書海印寺田券後」라는 글을 남겼는데, 43건의 전권이 작성된 연대는 현강왕 4년(878)~진성여왕 9년(895) 여간이라고 한다.⁶¹⁾ 이는 형식상 해인사가 매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기진이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⁶²⁾ 현강왕과 진성왕

57) 金相鉉, 「新羅 華嚴宗의 僧侶와 그 寺院」, 『新羅華嚴思想史研究』, 민족사, 1991, 70쪽.

58) 金相鉉, 「新羅 華嚴宗의 僧侶와 그 寺院」, 『新羅華嚴思想史研究』, 1991, 71쪽.

59) 「善安住院壁記」, 『崔文昌侯全集』, 1972, 82쪽.

60) 최원식은 순응은 聖穆太后 생전에 인연을 맺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고(崔源植, 「新羅 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49, 1985, 6쪽), 김진국은 당의 조정에서 800년 6월 직전에 소성왕의 어머니를 大妃로 책봉했던 기록에 주목하여 소성왕이 돌아간 이후에도 聖穆太后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면서 해인사 창건에는 성목태후와 섭정인 김연승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金鎮國, 「新羅 下代 海印寺와 王室」,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8쪽).

61) 今西龍, 「伽耶山海印寺の新羅時代の田券に就きて」,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하일식, 「海印寺田券과 妙吉祥塔記」, 『역사와 현실』 24, 1997 등 참조.

62) 하일식, 「海印寺田券과 妙吉祥塔記」, 『역사와 현실』 24, 1997, 22쪽.

때에도 해인사에 대한 왕실의 후원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 전권을 직접 보았던 조위의 기록에 의하면, 헌강왕 11년(885) 이전까지는 “北宮海印齋”라고 표기되고, 진성여왕 4년(890) 이후부터는 “惠成大王願堂”이라고 표기되었다고 한다. “北宮 海印齋”란 ‘北宮의 願刹 海印齋’란 의미였다.⁶³⁾ 즉위 전에 北宮長公主라 불렸던 진성여왕은 해인사를 원찰로 해서 후원을 하였다. 진성여왕 2년(888) 위홍이 죽자 혜성대왕으로 추봉하고 북궁 해인수를 혜성대왕원당이라 고쳐 부른 것은 진성여왕이 혜성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해인사에 원당을 세웠기 때문일 것이며, 원당암은 위홍의 명복을 빌기 위한 암자로 추정된다.⁶⁴⁾ 2005년 7월, 해인사 범보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나온 “誓願大角干主” “中和三年” “妃主” 등이 적힌 묵서명이 공개되었다.⁶⁵⁾ 중화 3년은 신라 헌강왕 9년(883년)인데, ‘大角干’이란 고위 관등이나 ‘妃主’ 역시 왕실과의 관련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900년을 전후한 시기 해인사에 주석한 승려로는 賢俊과 定玄 등이 있었고, 이 시기 최치원이 해인사에 隱居하였다. 먼저 賢俊은 해인사의 승려였고 최치원과는 특별한 관계였다.

- (1) 師兄인 大德은 玄準으로 이름하고 大乘遠으로 別號를 삼았다. 葉偈의 旅로 體하고, 화엄의 자리에 으뜸이 되었고, 의상대덕의 仍孫을 이었고, 益友 法藏公을 흠모하였다.(『法藏和尚傳』)
- (2) 최치원의 최후에는 가족을 데리고 사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은거하였는데, 母兄인 승려 賢俊 및 定玄師와 더불어 道友를 맺고 한가롭게 놀며 지내다가 노년을 마쳤다.(『삼국사기』 권 46, 열전 최치원)

63)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後원」, 『新羅文化』 28, 2006, 244쪽.

64)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後원」, 『新羅文化』 28, 2006, 246쪽.

65) 묵서의 판독에 대해서는 金昌謙,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新羅歷史學報』 4, 2005 및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後원」, 『新羅文化』 28, 2006 참조.

현준은 9세기초 해인사에 있던 뛰어난 화엄종 승려였다. 그는 의상계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의상의 동문 법장을 흠모하기도 하였다. 현준은 헌강왕 10년(884)에 決言과 더불어 당나라 지엄이 화엄교를 의상에게 부여한 은혜를 갚기 위한 「終南山儼和尚報恩社會」를 조직했고,⁶⁶⁾ 886년 정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법회를 개최했을 때는 왕의 청으로 화엄경을 강의하였다.⁶⁷⁾

최치원이 만년에 해인사에 은거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그는 진성여왕 8년(894) 신라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시무 10여조를 왕에게 올리자, 왕이 이를 嘉納하고 아찬의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⁶⁸⁾ 그러나 그가 은거하였음은 그의 건의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는 895년부터 10여 년 이상을 해인사에 은거하면서 많은 화엄관계 저술을 남겼다.

10세기 초의 해인사에는 希朗이 있었다. 해인사에는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木刻希朗祖師像이 봉안되어 있다.⁶⁹⁾ 후삼국시대의 화엄종은 南岳과 北岳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고려 光宗代의 均如에 의해 통합되긴 했지만, 화엄교단 내부의 남·북악의 대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均如師는 북악의 法孫이다. 옛날 신라말 가야산 해인사에 두 분의 화엄사종이 있었는데, 한 분은 관혜공으로 후백제 괴수 견훤의 福田이었고, 또 한 분은 회랑공으로 우리 태조대왕의 복전이였다. 두 분은 신심을 받아서 향화의 願 맺기를 청했지만, 원이 이미 달랐는데 마음이 어찌 같았으랴. 그 문도에 미처서는 차차 물과 불처럼 되었으니, 하물며 법화이겠느냐. 시고 짠 맛을 각각 받았으니, 이 폐단을 제거하기 어려움은 이미 유래가 오래였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觀惠公의 법문을 남악이라 했고, 希朗公의 법문을 북악이라고 했다. 均如師는 매양 남

66) 崔致遠, 「終南山儼和尚報恩社會願文」, 『崔文昌侯全集』, 1972, 233-237쪽.

67) 崔致遠, 「華嚴社會願文」, 『崔文昌侯全集』, 1972, 240-242쪽.

68)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 진성왕 8년조.

69) 924년에 쓰여진 「高麗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陰」의 興寧寺 院主 希朗長老가 해인사의 회랑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고 한다(金相鉉, 「新羅 華嚴宗의 僧侶와 그 寺院」, 『新羅 華嚴思想史研究』, 1991, 74쪽).

북의 宗旨가 모순되어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고, 많은 갈래를 막아 한 길로 돌리고자 했다. (赫連挺,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

후삼국시대의 각 정치 세력들은 각기 유력한 사원의 후원을 획득하고자 했었고, 승려들 또한 정치세력의 지지를 받고자 했다. 그런데 위 기록에 의하면, 희량은 고려 王建을 지지하고, 觀惠는 후백제 견훤을 지지함으로써 대립하게 되었고, 門徒들에 이르러 그 대립은 더욱 심각해 이론적인 차이까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해인사의 希朗과 觀惠가 대립하게 된 것은 다른 아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해인사가 고려와 후백제와의 전쟁이 있었던 지역에 위치했고, 관혜는 화엄사와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해인사는 왕실의 후원을 받아 창건된 이후 진성여왕 대에 이르기까지 화엄종 사찰로서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후삼국시대의 전환기 속에서 해인사 승려들은 신라 왕실과 결별하고, 고려와 후백제를 후원하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이로써 고려지역의 불교계도 일시 분열되고 말았다.⁷⁰⁾

5. 고려시대의 고려군

1) 행정구역의 축소

후삼국시대의 치열한 싸움은 고려 태조 왕건의 승리로 끝났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영토의 원활한 지배를 위해 州府郡縣의 명칭을 고치고 합속을 단행하는 등 지방통치조직을 개편하였다. 이 때 고려군은 오늘날의 성주인 京

70) 신라말 불교사원은 초적들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해인사에는 이들의 공격을 받아 물리치는 과정에서 전사한 승병들의 戰亡 위령탑이 있다. 李弘植, 「羅末의 戰亂과 緇軍」, 『史叢』 12·13합, 1968.

山府의 屬郡으로 편제되었다.

『고려사』 권57, 지리 2, 尙州牧 京山府 조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京山府는 원래 신라의 本彼縣인데 경덕왕은 新安으로 고쳐서 星山郡의 영현으로 만들었으며 후에 碧珍郡으로 고쳤다. 태조 23년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경종 6년(981)에 낮추어서 廣平郡으로 하였으며 성종 14년에 星州都團練使라고 불렀다. 현종 3년에 도단련사를 폐지하였고 9년에 知京山府事로 고쳤다. 충렬왕 21년에 興安都護府로 승격시켰고 34년에 다시 星州牧으로 승격시켰으며 충신왕 2년에 전국의 목이 없어짐에 따라 낮추어서 경산부로 하였다. 이 부에 伽椰山이 있고 이 부에 소속된 군이 1개, 현이 14개 있다.

위의 기사에 이어 경산부 관내 제 군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高靈郡에 대해서는 고려초에 본 부에 소속되고 명종 5년에 監務를 두었다고 하고, 若木縣은 고려에 와서 지금 명칭으로 고치고 본부에 소속시켰다고 하였다. 고령군과 약목현이 경산부의 속읍으로 편제된 시기를 단지 ‘고려초’, 혹은 ‘고려’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현종 9년(1018)에 군현제도를 다시 개혁하면서 경산부에 仁同縣, 知禮縣, 加利縣, 八居縣, 金山縣, 黃澗縣, 管城縣, 安邑縣, 陽山縣, 利山縣, 大丘縣, 花園縣, 河濱縣 등 13개 현이 속현으로 추가되었다. 경산부의 속군으로 고령군이 이미 존재했으므로 약목현까지 합쳐 모두 1군 14현이 경산부에 예속되었다. 고령군은 명종 5년(1175)에 監務가 파견되어 행정을 통할하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행정조직은 고려 말까지 변동이 없었다.

고령군이 경산부 소속으로 편제되었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 경산부 명칭이 사용된 시점을 고려하여 고려 태조 23년(940)에 경산부 소속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⁷¹⁾ 『경상도지리지』 星州牧官 조에서는 고려 태조

통합시 星山郡, 狄山縣, 壽同火縣, 本彼縣, 京山郡, 樺山縣을 경산부로 삼았다고 하였고, 또 태조 8년(925)에 李能一, 裴甲父 裴崔彦 등 이곳 출신 장군들이 태조의 삼한통합을 도운 대가로 星山, 狄山, 壽同, 樺山, 本彼의 다섯 縣을 합해 경산부가 되었다고도 하였다.⁷²⁾ 곧 『경상도지리지』에서는 2군 4현을 합해 경산부가 성립되었는지, 아니면 5현을 합해 경산부가 성립되었는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경산부의 성립 시기이다.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태조 23년 설을, 『경상도지리지』에서는 태조 8년 설을 전하여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고려사』 지리지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태조 23년의 개명은 태조 8년에 실제로 개편한 것을 이 때 추인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⁷³⁾ 그렇다면 고령군이 경산부 소속으로 편입된 것은 태조 8년에서 23년 사이의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통일신라시기 고령군의 영현은 신복현과 야로현이 있었다. 고려 태조의 지방제도 개편 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복현은 기록이 없지만, 야로현은 현종 9년(1018) 고령군에서 분리되어 靑州牧 관하의 陝州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고령군의 영역 범위는 신라시대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신복현과 야로현이 현종 9년까지 존재한 방식이 궁금하다. 아마 이들 지역 모두 고령군에 편입된 상태로 고령군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지역이 폐현된 상태였는지, 영현의 관계로 소속되어 있었는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신복현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도 “今未詳”이라 하여 그 移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고려초에 고령군이 京

71) 高靈郡, 『高靈郡誌』, 1996, p.189; 星州郡, 『星州郡誌』, 1996, 160쪽.

72) 후삼국시대 해인사에서는 南岳의 觀惠와 北岳의 希郎이 각각 후백제 견훤과 고려 태조의 福田이 되었음은 앞서 살핀바 있거니와, 성주에서는 李憲言과 李能一이 고려 태조에 협조하였다. 합천과 성주의 동향과 관련하여 고령지역 역시 태조 왕건에 협조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천, 성주와는 약간의 차이를 두어야 할 듯하다.

73) 박종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127-128쪽.

山府의 屬邑으로 될 때, 폐현된 것으로 추측한 견해가 참고 된다.⁷⁴⁾

2) 고령 반룡사의 화엄결사

고려시대 고령군은 행정구역 축소와 함께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같은 영향인 듯 불교 관련 자료도 매우 빈약하다. 남아 있는 몇 가지 유물과 『동문선』에 실린 崔濬의 「送盤龍如大師序」 등을 통해서 당시 불교계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고령 개포동 석조여래관음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8호, 개진면 소재)은 '雍熙二年乙酉六月二十七日'이라는 명문이 있어 옹희 2년인 성종 4년(985)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10세기에 조각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의 태평 2년명 마애약사불좌상(보물 제981호)과 비교해 볼 때, 이 보살상의 조각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한다. 이것은 제작자가 석공의 기술을 넘지 못하는 지방장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되며, 당대 지방석공의 지방화된 작품경향을 알려주는 예로 주목된다.⁷⁵⁾ 고령 대평리 석조여래입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59호, 운수면 소재)은 주변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불이 위치한 이곳은 예전의 盧溫寺 절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나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다만 주변에서 연꽃무늬가 새겨진 고려시대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어 근처가 절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⁶⁾

고려시대 고령지역의 사원으로는 쌍림면 용리의 盤龍寺가 주목된다. 반룡사에는 고려시대 석탑으로 추정되는 多層石塔(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7호)이 있거니와, 이곳에서 결성된 화엄결사는 특기할 만하다. 1170년에 있었던 무신란은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무신정권에 대한 반발은 문벌화된

74) 高靈郡, 『高靈郡誌』, 1996, 189쪽.

75) 崔聖銀, 「고령개포동석조관음보살좌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76) 慶尙北道, 『文化財大觀(V)』, 흥익출판인쇄사, 2003, 478쪽.

개경의 문신귀족들과 이들 가문과 결탁하였던 교종 사원의 승려들로부터 나타났다.

이 무렵 盤龍社를 개창한 승려는 李仁老의 大叔인 僧統 廖一이었다.⁷⁷⁾ 이 인로는 인주이씨의 후예로 무신집권기 화엄종 최대 사원인 개경의 興王寺에 피신하였다. 이곳에서 그의 대숙인 僧統 廖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자신도 승이 되었다가 환속하였다. 승통이란 교종 최고의 승계에 있던 廖一이 궁궐에 출입하면서 좌우를 묻지 않은 지가 20년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⁷⁸⁾ 그는 명종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洪왕사의 주지로 있었으리라 추측된다.⁷⁹⁾ 그는 한때 僧徒와 더불어 무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 명종 23년(1197) 9월, 최충헌이 洪왕사에 가서 불상의 완공을 경축하려 하였으나 洪왕사 僧統 廖一이 중서령 두경승과 함께 최충헌을 살해하려 한다는 무기명 투서가 있었으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⁸⁰⁾ 따라서 이 사건이 있는 후 개경을 떠나 경상도 고령으로 내려와 반룡사를 개창하였다면, 대체로 신종·희종 연간인 13세기 초엽이 반룡사의 개창 연대라고 하겠다.⁸¹⁾

무신집권기 고령의 반룡사에서 화엄결사가 열린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崔瀼의 다음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社는 學佛者가 자포자기하는데 그치는 것을 민망히 여겨 策磻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하니, 더구나 그 학에 힘을 기울인 것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문도가 대대로 법을 지켜 떨어뜨리지 아니하여 지금에 와서는 東方華嚴의 大道場이 되었다. (『송반룡여대사서』)

77) 崔瀼, 「送盤龍如大師序」, 『拙藁千百』 권1 : 『東文選』 권84.

78) 『破閑集』 卷中 “明宗時 大叔僧統廖一 出入禁于閣 不問左右 二十餘年”.

79) 韓基汶, 「寺院의 創建과 重創」 『高麗 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74쪽.

80) 『高麗史』 권129, 열전 42, 叛逆 崔忠獻, 『高麗史節要』 권13, 명종 27년 9월조.

81) 秦星圭, 「高麗後期 修禪社의 結社運動」, 『韓國學報』 36, 1984, 10쪽.

즉 반룡사의 개창 목적은 학불자들이 자포자기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학불자들이 학불자들이 자포자기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요일이 결사했던 명종 말년 이후 고려의 정치적 실권은 무신정권의 집권자 최충헌에게 있었고, 왕권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였다. 최충헌은 명종, 희종을 쫓아내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 등을 옹립하였다. 명종 2년(1172)에는 서안도의 창주, 성주, 철주 등에서, 명종 6년에는 공주 명학소에서, 명종 12년에는 전주에서 군인과 관노들이 난을 일으키는 등 전국이 어지러웠다. 명종 23년에 일어난 김사미, 효심의 난은 규모가 커지면서 민란의 성격을 띠었다. 신종 때에는 명주 농민의 반란, 진주 노비의 반란 등이 일어났다. 난이 거듭되면서 신분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에까지 도전하였다.

이러한 시기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승려들의 저항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명종 4년에 있었던 귀법사, 중광사, 흥호사, 흥화사 등 화엄종 사찰 승려의 경우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신종, 희종 때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학불자들의 자포자기는 교종계 승려들의 시대적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종의 종세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데 반룡사 창건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고려의 반룡사에서 화엄결사가 이루어졌을까. 반룡사가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방 화엄종의 대찰인 해인사가 가까이에 있어 그 연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반룡사의 창건은 요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기원은 이보다 약간 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⁸²⁾

82) 朝鮮總督府, 『朝鮮寺刹史料(上)』, 1911, 383쪽에서는 “盤龍寺 高靈郡 高谷面 所在 在郡西四十二里美崇山下海印寺之始創也, 新羅哀莊大王住於此 其先於海印可知”라 하여, 반룡사의 창건 시점을 해인사와 같은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후대의 자료로 신빙성이 약하지만, 반룡사가 해인사 계통임을 시사한다.

고려 초기의 대표적 화엄종 승려였던 均如의 저술 가운데 『一乘法界圖圓通記』가 있다. 그 跋文에는 “盤龍社比丘日幢 詳校二本 爲上下卷”이라 하여 반룡사 승려가 나타나고 있다.⁸³⁾ 고려시대 『一乘法界圖圓通記』는 國賢記錄本, 金生寺古藏本, 惠保本, 法要本 등 異本이 있었다. 이 중 법요본은 반룡사의 비구인 일당이 김생사소장본을 상세히 교정하여 2권으로 만들고, 『法界圖圓通記』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⁸⁴⁾ 그 후 해인사 주지인 僧統 天基 등이 業內諸德과 詳定하여 3권으로 나누었고, 上制를 받들어 開板한 것이 至元 24년(1287, 충렬왕 13년) 5월이었으므로, 일당은 그 이전 시기의 반룡사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元 世祖가 일본을 정벌할 때 군사가 合浦를 출발한 후 軍馬가 이곳 반룡사에 방목되었는데, 聖壽를 祝願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여 일체 금하였다고 한다.⁸⁵⁾ 원의 일본 정벌은 1274년과 1281년이었으므로, 이 시기 盤龍社는 원의 세조가 榜文을 내릴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하겠다. 일본 정벌의 성공과 원 세조의 祝壽가 당시 반룡사에 맡겨진 정신적 의미가 아니었을까 한다.⁸⁶⁾

무신정권과 몽고 압제를 거치면서 조계종이 융성한 반면 화엄종은 침체하였지만, 공민왕 이후의 화엄종은 더욱 침체하였다. 고려말에는 원의 임제종 승과 교류한 조계종 승들이 불교계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⁸⁷⁾ 공민왕 대에 화엄종 승려로 國師에 책봉된 眞覺國師 千熙는 고려말 조계종 이외의 종파에서 배출된 유일한 승려였다. 그는 흥해 출신으로 충렬왕 33년(1307)에 태어났다. 13살 때인 충숙왕 6년(1319) 華嚴 盤龍社主 一非大師를 은사로

83) 『韓國佛教全書』 제4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38-39쪽.

84) 金杜珍, 「均如의 生涯와 著述」, 『均如華嚴思想研究』, 韓國研究院, 1981, 39-40쪽.

8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郡 佛宇 盤龍寺.

86) 秦星圭, 「高麗後期 修禪社의 結社運動」, 『韓國學報』 36, 1984, 11쪽.

87) 許興植, 「教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教史研究』, 1986, 200쪽.

하여 출가하였다.⁸⁸⁾ 여기서 화엄사찰로서의 반룡사와 주지인 일비대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向如는 소년시절에 삭발하고 選佛場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선불장이란 승과의 최종고시인 大選을 뜻한다.⁸⁹⁾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승직이 높아지고 명찰의 주지직을 제수받았으나 노부모를 봉양키 위해 거절하였다. 또 泰定初(1324, 충숙왕 11년)에 반룡사의 主法을 임명할 때, 法水堂頭인 覺海大師 向如가 추천되었고 이를 도침의사사가 허락하였다.⁹⁰⁾ 그는 體元이라고도 불렸으며,⁹¹⁾ 균여 계통을 계승한 화엄종 승려였다. 법수사의 당두와 반룡사의 주법을 거쳐 1331년에는 海印寺 沙門, 海印典炷 覺海大師, 海印大師 등으로, 또 1338년에는 兩街都僧統 國一大師로 활동하였다.⁹²⁾ 반룡사는 유일 이후 문도들에 의해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14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향여와 같은 화엄승이 절사도량의 주법이 되었다.

眞覺國師 千熙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盤龍社에서 출가하였다. 6년 뒤인 충숙왕 12년(1325) 19살의 나이로 上品選⁹³⁾에 합격하여 金生寺, 德泉寺, 符仁寺, 開泰寺 등 주지를 역임한 뒤, 공민왕 16년(1367) 국사에 책봉

88) 『朝鮮總督府, 「水原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朝鮮金石總覽(上)』, 1919, 531쪽 “以大德丁未五月二十一日生 師年十三 投華嚴盤龍寺主一非大師薙髮”.

89) 許興植, 「僧科制度와 그 機能」, 『高麗佛敎史研究』, 1986, 370쪽. 후술하듯이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승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면 그의 승과 합격 시기는 충선왕 때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충선왕 대의 승과 합격자가 처음으로 밝혀지는 셈이 된다.

90) 崔滄, 「送盤龍如大師序」, 『東文選』 권84.

91) 법명은 體元, 법호는 木庵, 向如라고도 했으며 覺海大師의 諡號를 받았다고 한다(蔡尙植, 「體元의 저술과 화엄사상」,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199쪽). 그러나 각해대사는 생존시에 사용되었으므로 시호라고 하긴 어렵다.

92) 「華嚴經觀音知識品」 및 「三十八分功德疏經跋文」, 『韓國佛敎全書』 제6책, 1984, 604쪽 : 蔡尙植, 「體元의 저술과 화엄사상」, 『高麗後期佛敎史研究』, 1991, 198-201쪽.

93) 승과의 최종고시인 大選을 뜻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禪僧의 고시로 이해한 견해가 있으나(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4)』, 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2000, 499쪽) 따르기 어렵다.

되었다. 우왕 8년(1382) 76살로 수원 창성사에서 입적하자, 왕 12년에 門人 開泰寺 住持 妙智無碍 通照大師 冲述이 국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탑비를 세웠다. 이때 건립된 水原 彰聖寺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 음기에 “盤龍社主法廣通圓妙洪濟大師△△”⁹⁴⁾라 하여, 반룡사 소속 승려가 등장하고 있다. 14세기 말까지 화엄종 문도들에 의해 반룡사의 主法이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반룡사의 화엄결사는 13세기 초엽에 시작되어 무신정권이 몰락한 13세기말, 그리고 14세기초에서 말에 이르기까지 문도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반룡사의 화엄결사는 무신정권 몰락 후 고려말까지도 자포자기하는 학불자들을 막아보자는 개창의 뜻을 받들어 중세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하겠다.

6. 맺음말

대가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의 562년 9월 설과 『일본서기』의 566년 정월 설이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는 560년 멸망 설도 있었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사를 아울러 검토한 결과, 대가야는 560년에 신라에 멸망한 적이 있거나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태에서, 신라에 반란을 꾀하다 562년에 완전히 멸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가야 멸망 후 수도였던 고령은 ‘대가야군’으로 격하되었다. 이에 따라 대가야인들의 향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 고령에 거주하였던 상당수 지배층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났다. 신라 정부에서 이들을 토착세력과 분리시키고자 거주지를 먼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

94) 종래에는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上)』, 1919, 532쪽의 판독을 따라 “盤龍△法△通圓妙三重大師△△”로 판독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탁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읽었다. 단 ‘主法’은 ‘△法’으로 판독되었으나 추독하였다. 반룡사의 우두머리는 住持라 하지 않고 主法이라 한 듯하기 때문이다.

령지역 피지배층은 그 자리에 남았을 것이다.

통일신라기 고령지역은 오늘날의 고령군과 합천군 야로면, 가야면 일대를 포함하였다. 경덕왕 대에 '대가야군'은 '고령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령이란 이름은 이때부터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가야의 원래 국명이었던 '가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802년에는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가 창건되었다. 해인사는 신라 왕실의 후원 아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후삼국시대 견훤과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면서 고령지역의 불교계가 분열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고령군의 영역은 신라시대보다 축소되었다. 1018년에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고령군의 일부였던 야로현이 합천군의 관할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인사는 고령군에서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13세기초 해인사 계통의 반룡사에서 화엄결사가 결성되었다. 반룡사의 화엄결사는 무신정권시대 교종 침체에 비롯된 화엄종 승려들의 결사로서 寥一, 日幢, 一非大師, 千熙, 向如, 洪濟大師△△ 등으로 계승되었다.

이상으로 대가야의 멸망으로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까지 이어지는 고령지역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한 나라의 왕도에서 평범한 한 지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대략적이거나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한 편의 논문에서 800년이 넘는 세 왕조의 역사를 다루다보니 깊이 천착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이러한 점은 다음 기회에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 참고 문헌 】

〈자료〉

『三國史記』

『日本書紀』

『東文選』

『破閑集』

『新增東國輿地勝覽』

『韓國佛教全書』 제4책·제6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1984.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陝川 大耶城(陝川郡 大耶城 考證을 爲한 1·2차 試掘調査報告書)』, 2005.

慶尙北道, 『文化財大觀(V)』, 흥익출판인쇄사, 2003.

高靈郡·慶北科學大學博物館, 『高靈池山洞 幢竿支柱 發掘調査 報告書』, 2002.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는 살아 있다』, 2006.

釜山大學校博物館, 『陝川 苧浦里 E地區遺蹟』, 1987.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崔文昌侯全集』, 1972.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4)』, 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2000.

朝鮮總督府, 『朝鮮寺刹史料(上)』, 1911.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上)』, 1919.

Bernhard karlgr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Taipei, 1966 : 『漢字古音辭典』, 亞細亞文化社, 1975.

〈단행본〉

高靈郡, 『高靈郡誌』, 1996.

金杜珍, 『均如華嚴思想研究』, 韓國研究院, 1981.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文暲鉉, 『新羅史研究』, 慶北大出版部, 1983.

박중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5.
 星州郡, 『星州郡誌』, 1996.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1.
 千寬宇,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韓基汶, 『高麗 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田中俊明, 『大加耶連盟의 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논문〉

具滋奉, 「高靈 池山洞 幢竿支柱의 發掘調査」, 『佛教考古學』 창간호, 2001.
 金福順, 「大加耶의 佛教」, 『加耶史研究』, 1995.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2006.
 金鎮國, 「新羅 下代 海印寺와 王室」,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金昌謙,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新羅史學報』 4, 2005.
 金泰植, 「加耶의 社會發展段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9.
 盧重國,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
 白承忠, 「于勒十二曲의 해석문제」, 『韓國古代史論叢』 3, 1992.
 李泳鎬, 「新羅 惠恭王 12年 官號復故의 意味」, 『大丘史學』 39, 1990.
 李泳鎬, 「于勒 12曲을 통하여 본 大加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2006.
 李炯基, 「滅亡 이후 大加耶 遺民의 向方」, 『韓國上古史學報』 38, 2002.
 林炳泰, 「新羅小京考」, 『歷史學報』 35·36합집, 1967 : 『韓國史論文選集(古代篇)』, 一潮閣, 1976.
 朱甫墩, 「于勒의 삶과 가야금」,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2006.
 秦星圭, 「高麗後期 修禪社의 結社運動」, 『韓國學報』 36, 1984.

- 蔡尙植, 「陝川 苧浦 4號墳 出土 土器의 銘文」, 『伽倻』 2, 伽倻文化社, 1989.
- 崔源植, 「新羅 下代의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49, 1985.
- 하일식, 「海印寺田券과 妙吉祥塔記」, 『역사와 현실』 24, 1997.
- 韓祐勳,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上)」, 『歷史學報』 12, 1960.
- 田中俊明, 「于勒十二曲と大加耶連盟」, 『東洋史研究』 48-4, 1990.
- 鈴木靖民, 「六世紀の朝鮮三國と伽耶と倭」, 『東アジアの古代文化』 62, 1990.

Abstract

The Fall of Dagaya and the Change in Goryeong Region

Lee, Young-Ho

Viewing from the remaining historical records, there are several views as to the actual time of the fall of Dagaya : either in 560 or in 562, and even either in September 562 or in January 562. As a result of close examination of these records, it is clear that Dagaya either fell to Silla in 560 or virtually fell in 560 and attempted a revolt and then was finally destroyed by the neighboring kingdom in 562.

After the fall of Dagaya, its capital, Goryeong, was degraded to the "County of Dagaya," and the life of the people of Dagaya revealed itself in a variety of types. A majority of the ruling class that lived in the capital of Goryeong left their homes. The Silla government forced them to move to remote regions in order to separate them from their native forces. But the ruled commoner people might probably remained in their original places.

In the period of Unified Silla, the region of Goryeong included present-day Goryeong county, Yaro and Gaya townships of Hapcheon county. In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the Daegaya county was renamed that of Goryeong. From then on, the name of "Goryeong" came to be used. It is presumed that "Goryeong" originated from "Gara" the original name of the Daegaya kingdom. In 802, the Haein-sa temple, which belonged to the Hwaeom sect of Buddhism, was established. The Buddhist temple maintained close ties with the royal household of Silla, but in the period of the Later Three Kingdoms it was divided into two groups which supported either Gyonhwon or Wangun.

In the Goryeo period, the territory of the Goryeong county became smaller than in the Silla period.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at the time of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on in 1018 the Yaro county (*hyeon*) was incorporated into the Hapcheon district (*gun*). In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ve alteration, the Haein-sa temple was excluded from the Goryeong county. But early time in the 13th century the Hwaeom fraternity affiliated with the Haein-sa temple was organized at the Banryong-sa temple in the Goryeong region. It is noted that it was a society of Buddhist monks of the Hwaeom sect in the period of inactivity of the *Gyo* (Text) School during the military rule.

Key Word

Dagaya, Gara, Goryeong, the Yaro County, the Haein-sa Temple, the Banryong-sa Temple, the Fraternity of the Hwaeom Sect

- 논문투고일 : 2007.12.14. 심사시작일 : 2008.01.17. 심사완료일 : 2008.01.27.